

〈資 料〉

韓國農家所得과 學校教育의 關係

——農村實態調查報告例——

崔 榮 喜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碩士)

차 례

序 言

I.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치는 영향

- 1)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
- 2) 農家所得에서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
- 3)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와의 相關關係計測
- 4) 農家所得別 學校就學率
- 5)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相關性 檢定

II.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

- 1) 經營主 教育程度와 農家所得
- 2) 經營主 教育程度別 現在 女子就學程度
- 3) 農村出身의 學校卒業程度와 農業寄與度

結 言

序 言

오늘날 韓國社會의 經濟面에 나타난 主要目標가 急進的인 經濟成長이라면 生産의 知識과 技術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人的 資源의 計劃의 開發이 切實히 要求된다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에 關聯하여 우리는 반드시 教育의 經濟的 意義, 즉 말하자면 教育投資의 生産性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人的 資本을 中心으로 한 教育問題가 크게 論議되는 所以이다.

오늘날 教育投資의 開發이란 人間의 知識技能 및 潛在能力을 增進시키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 經濟的으로 말하면 人間資本을 蓄積하고 그것을 經濟開發을 위하여 効率的으로 投資하는 요령이며 그러므로써 그것은 近代化로 通하는 契機을 뜻하는 것이다.

美國과 같은 발달된 經濟體制에 있어서도 가장 特徵의인 樣狀이 人力 資本(Human Capital)의 成長에 있다는 것은 眞正한 事實이다. 그리하여 人力 資本의 成長없이는 財産所得이 있는 사람을 除外하고는 힘드는 勞動(Manual Work)과 貧困단이 形成될 뿐이라고 포그너(Faulkner)는 말하고 있다. 한편 스펀포드 大學 調查研究所(The Research Institute)의 윌리엄 플랫(William J. Platt) 역시 理論的인 測面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論評하는 가운데 “教育은 投資이며, 同時에 消費이다”라고 主張하고, 일찍이 아담·스미스(Adam Smith)에 있어서 그러한 事實은 잘 알려져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經濟發展에 關聯하여 人間問題가 積極的으로 意識되기 시작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後進國의 經濟發展 및 成長問題와 關聯하여 物的 資本과 더불어 人間の 知識學術等을 일종의 必須不可缺한 資本으로 規定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 人的 資本을 經濟發展의 戰略的 要因으로 생각하고 人的 資本의 開發과 活用은 産業化와 近代化의 前提條件으로 내걸기까지 하고 있다.²⁾

本 研究에서는 全般的인 經濟面보다 아직 韓國經濟의 基幹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農村經濟에 있어서의 學校教育의 實態를 分析하고자 한다. 韓國經濟의 現段階에 있어서 農業(農村經濟)은 後進狀態에 머물고 있으므로 한층 더 그 重要性이 強調되는 所以이다. 따라서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치는 영향과 反對로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追究하고자 筆者는 1969년에 있어서 天原郡 일대를 대상으로 標本抽出한 148農家를 現場調査하여 統計의 處理를 試圖해 보았다. 以下の 結果는 바로 그것을 整理한 要點이다.

調査期間; 1970年 4月 20日~5月 20日

天原郡을 대상으로 取한 理由; 本郡은 全國的으로 그다지 偏頗性이 없다고 보아지는 農村地域이기 때문이다.

I.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치는 영향

韓國 農民들의 經濟的 落後性이 무엇보다 一般的이라는데 우리의 관심은 集中된다. 이러한 低開發狀態에서 벗어나 發展된 經濟를 이룩하려면 여러가지 摸索方法이 있겠지만 그중 “많은 教育을 받은 農夫들은 많은 收入을 내고 적게 教育을 받은 農夫들은 적은 收入을 만든다”³⁾는 것과 또한 敎育水準이 높으면 높을 수록 生活水準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는 命題가 우리에게 물어질 수 있는 對象이다. 우선 그 結果는 先進國의 研究結果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教育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록 많은 貨幣支出을 하며 文化的인 生活를 營爲⁴⁾한다는 것, 그리고 教育과 經濟發展은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證明할 수 있다. 그러던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친 영향에 대해 調査分析한 구체적 사실은 어떻게 表示되어 있는가?

1)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

農村에서 子女들을 就學시키는 데 가장 큰 支配要因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農家所得을 들 수 있다. 子女들을 就學시키는 데 있어서는 教育費라는 問題와 直結되어 있으므로 學校教育費는 바로 그것과 依存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他要因도 있겠지만 子女들을 就學시키기 위해서 農家所得을 빼놓고, 문제를 살펴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本調査에 의하면 教育費別 農家數는 <表 I-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48 農家中 教育시킬 子女없는 農家は 20戶이었고, 그 나머지 128農家は 다 教育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教育費 1,000 원에서 5,000원 사이에 該當되는 農家が 第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金潤泰, “教育과 人力과 經濟成長” 現代教育에 켄스(第17輯) (서울, 흥원인쇄사, 1967) p.188.

2) 朴喜範外 4人, “人的 資本과 經濟成長” 經濟敎室(Ⅱ) (서울, 韓國日報社, 1966) p.154.

3) Jil Hyun Lee, Economic Value of Korean Farmer's Education. (Cornell大學校碩士學位請永論文, 1967) 등사본.

4) 尹堉燮, 韓國社會學(제 4집)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p.30.

國民學校 教育시키는 農家 65戶

中學校 " " 42

高等學校 "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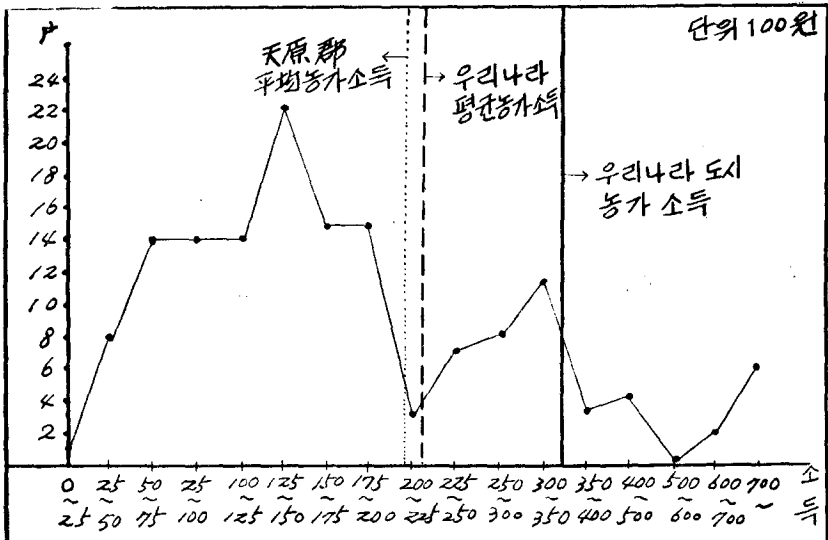
大學校 " " 5

(※ 學生 一人當 教育費 推定에 있어서 內容項目은 “中央教育研究所원, 年間投入되는 教育費總額推定(제53집)”에 依據하였음.)

〈表 I-1〉 教育費別 農家數 (단위: 戶)

教育費 間 隔	農家數	教育費 間 隔	農家數
0	20戶	60,000~ 70,000	0戶
1,000~ 5,000	46 "	70,000~ 80,000	5 "
5,000~10,000	14 "	80,000~ 90,000	8 "
10,000~20,000	5 "	90,000~100,000	3 "
20,000~30,000	0 "	100,000~150,000	0 "
30,000~40,000	16 "	150,000~200,000	2 "
40,000~50,000	25 "	200,000~250,000	3 "
50,000~60,000	1 "	計	148戶

한국의 農業은 家族農業인지라 資本家の 企業農에 比할 수 없이 貨幣所得은 매우 낮은편이다. 現物所得을 換算하여 본다하여도 다음 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低劣하다. 지금 農家所得을 等分하여 보니 農家所得中 125,000원에서 150,000원 사이에 農家數(23戶)가 가장 많다.



〈圖 I-1〉

農家所得別 農家數

위 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所得은 20만원 以下の 農家가 大部分으로 되어 있다. 좀더 자세히는 225,000원 以下인 農家가 148家口中 107家口로써 約 72.3%에 該當되고 있

다. 더욱 本調査의 例에 있어서는 農家所得分布率이 第一 많이 차지하고 있는 125,000원에서 150,000원 사이인 23農家가 全國 平均農家所得보다 낮다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天原郡 農家所得은 우리 나라 平均農家所得보다 대체로 落後되어 있다는 점이 불만하다.

107農家(72.3%) < 우리나라 平均農家所得 < 41農家(27.7%)

한편 全國의으로 볼 때 都市勞働者所得이 333,600원 인데 比해 農家所得은 218,556원으로 너무 낮은 水準을 보여주고 있는데 天原郡 農家所得(196,950원)은 거의가 다 都市勞働者所得보다 低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農村人口가 離農하는 原因도 있다.

129農家(87.1%) < 都市勞働者所得 < 19農家(12.9%)

本調査에서 農家所得이 都市勞働者所得보다 높은 所得은 겨우 12.9%에 불과하고 大部分이 그 以下를 占하고 있다(87.1%).

2) 農家所得에서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

本研究에서 農家所得中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을 百分比(%)로 내어보니 5% 以下인 農家가 全體農家中 43戶로서 가장 많이 集結되어 있는 것을 <表 I-2>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部門에 屬하여 있는 農家中 中學校教育費를 支出하는 農家가 하나도 없음을 보아 國民學校만 보내고 있는 農家は 그 所得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더 높은 教育을 시킬래도 教育費가 없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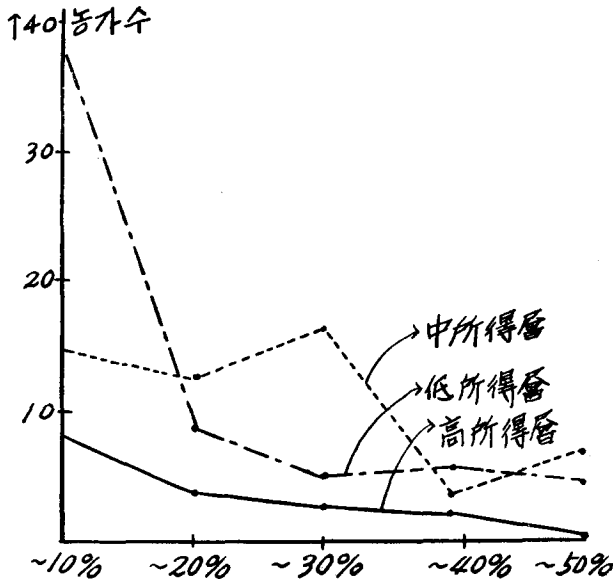
農家所得에서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20% 以上인 경우에는 國民學校教育을 시키는 農家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50% 以上인 農家가 하나 있는데 이는 農家所得이 원래 낮아 그 比率이 높게 計算되었기 때문이다. 本調査에서 農家所得中 教育費가 차지하는 總平均 比率을 내어보니 16.2%가 算出되었다.

<表 I-2>

農家所得中 教育費百分率 農家數

農家所得中 教育費 (%)	國民校 農家數	中教以上 農家數	合 計
1~5%	43 戶	0 戶	43 戶
5~10 "	12 "	5 "	17 "
10~15 "	6 "	6 "	12 "
15~20 "	3 "	9 "	12 "
20~25 "	0 "	12 "	12 "
25~30 "	0 "	11 "	11 "
30~35 "	0 "	5 "	5 "
35~40 "	0 "	5 "	5 "
40~45 "	0 "	4 "	4 "
45~50 "	0 "	2 "	2 "
50~	1 "	4 "	5 "
計	65 "	63 "	128 "

所得階層別에 따라 農家所得中 教育費百分率에 該當하는 農家數가 <圖 I-2>에서 나타



〈圖 I-2〉 教育費百分率別 農家數

나고 있다. 高所得層은 教育費百分率에 따라 別差異없이 平行으로 되어 있어 農家所得에서 教育費支出은 많은 타격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反面에 低所得層은 教育費 百分率이 下位인 農家數가 많음을 보아 農家所得에서 教育費支出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므로써 經濟生活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部門에는 義務教育인 國民學校教育만을 시키고 있어도 그 比重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天原郡에서의 國民學校 就學率은 99.8%로 農家所得에 關係없이 就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所得層은 農家所得에 따라 教育시키기 보다는 父母의 誠意나 다른 要因에 의하여 教育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여기에서 高所得層은 農家所得 350,000원 이상으로서 10.1%, 中所得層은 150,000~350,000원 사이인 39.1%, 低所得層은 150,000원 以下로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圖 I-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高所得層은 農家所得中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에 있어서 所得이 높아 감에 따라 그 百分比는 낮아지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部分에 屬하는 高所得層은 겨우 10.1%이니 나머지 中所得과 低所得層은 90%라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特히 本調査에 의하면 中所得層은 農家所得에 別關係없이 不均衡으로 教育費가 支出되고 있다.

農家所得層에 따라 教育費가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相異表가 <表 I-3>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國民學校 教育費가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과 中學校 以上の 教育費가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差異가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中學校 以上の 教育費는 國民學校 教育費보다 훨씬 農家所得과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國民學校는 義務教育이니까 어느 所得層에서든지 就學시키나 中學校 以上の 就學(그다지 높은 相關關係는 아니지만)은 農家所得에 어느 程度基因됨을 알 수 있다.

〈表 I -3〉 농가소득과 농가소득중 교육비 백분율 상관표 (단위 : 1000원)

(단위 1000원)

농가소득 의 백분율	0 ~ 25	25 ~ 50	50 ~ 75	75 ~ 100	100 ~ 125	125 ~ 150	150 ~ 175	175 ~ 200	200 ~ 225	225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500	500 ~ 600	600 ~ 700	700 ~	計
의 백분율	0 ~ 25	25 ~ 50	50 ~ 75	75 ~ 100	100 ~ 125	125 ~ 150	150 ~ 175	175 ~ 200	200 ~ 225	225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500	500 ~ 600	600 ~ 700	700 ~	(%)
52		++	+++	+++	+++	+++	+++		++	+++	+	+		+	+			23
5 ~ 10			++	+++	+++	+								+	++		++	17
10 ~ 15			+++	+++	+++	++												12
15 ~ 20			+++	+	+													12
20 ~ 25						++	++	++	++	++				+	+			12
25 ~ 30						++	++	++		+		++						11
30 ~ 35						+	++					+					+	5
35 ~ 40							+	+		+	+					+		5
40 ~ 45								++	++		+							4
45 ~ 50							+	+										2
50 ~		+				+		+			+	+						5
計(P)	0	6	10	11	14	19	13	13	3	6	7	11	3	4	0	2	6	128

+ 國民學校
· 中學校以上

3) 農實所得과 學校教育費와의 相關關係計劃

本研究에서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는 相關關係가 높으리라 假定했는데 過然 어느 程度關聯이 있을까? 이런 疑問點에서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相關關係를 내어보니 다음과 같이 算出되었다.

$$R = \frac{\sum E^1 \cdot Y^1 - N \cdot \bar{E} \cdot \bar{Y}}{\sqrt{\sum E^{12} - N \bar{E}^2} \sqrt{\sum Y^{12} - N \bar{Y}^2}}$$

$$E = \text{學校教育費} \quad \sum E^{12} = 15,500$$

$$Y = \text{農家所得} \quad \bar{E} = 6.12$$

$$N = 148 \quad \sum Y^{12} = 60,530$$

$$\bar{Y} = 15.78$$

$$\sum E \cdot Y^1 = 22,614$$

$$R = \frac{22,614 - 148 \times 6.12 \times 15.78}{\sqrt{15,000 - 138(6.12)^2} \sqrt{60,530 - 148(15.78)^2}}$$

$$= 0.541$$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와의 相關關係에 그 係數 σ 은 0.541 이 算出되었으므로 r^2 은 30% 로 說明可能하다(여기에서 學校教育費는 國民學校에서 大學校까지 算出했으므로 相關關係가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國民學校는 義務教育이라서 農家所得에 關係없이 教育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關聯性이 있느냐에 現在 中學校在學中인 農家만을 分析하여 보니 다음과 같이 算出되었다. 于先 實地 中學校教育 適令人口와 예상 教育適令人口의 配

분이 똑같은 階層인 農家끼리 골라 相關關係를 내어보니

$$\sigma_{rE} = \frac{N \cdot \sum YE - \sum Y \sum E}{\sqrt{N \sum Y^2 - (\sum Y)^2} \sqrt{N \sum E^2 - (\sum E)^2}}$$

의 공식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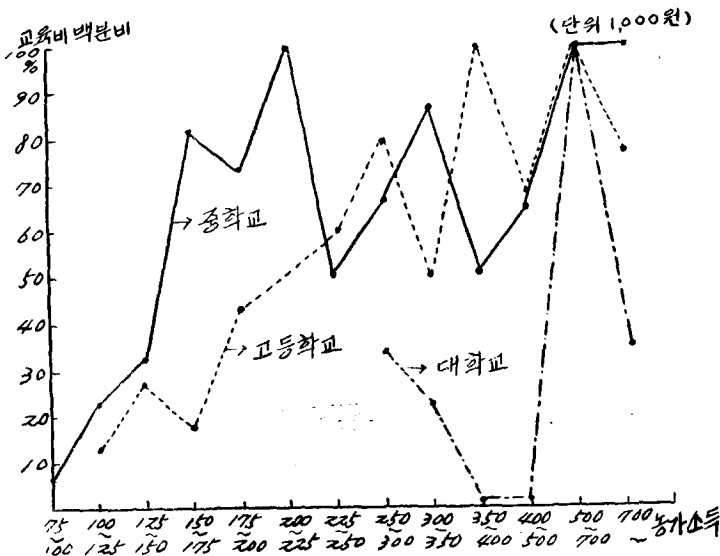
$$\sigma = \frac{10 \times 137,245 \times 1,146,132}{\sqrt{10 \times 25,102 - (468)^2} \sqrt{10 \times 921,233 - (2,499)^2}} \\ \approx 0.69$$

가 算出되었으므로 σ^2 은 약 50%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와의 關係는 50%이고 나머지 50%는 다른 要因에 基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原因을 把握하기 위하여는 經營主教育程度와 子女教育(就學率)을 다루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 章(Ⅱ-B)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4) 農家所得別 學校就學率

學校教育을 받으려면 적지않은 費用이 必要하며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보다 더 充分한 費用이 마련되어야 한다. 大略 高等學校程度의 學校正規教育을 시키려면 한 사람 몫에 該當하는 1人當 國民所得全部를 教育費에 投資⁵⁾해야 한다는 것이다.

〈表 I-4〉에서 보던 農家所得別 學校就學率이 나타나고 있다. 大學校教育은 年平均農家所得이 250,000원 以上이어야 子女의 大學教育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高等學校教育은 100,000원 以上, 中學校는 75,000원 以上이어야 正規教育을 시킬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따라서 教育水準이 높아 질수록 教育費가 많이 支出되므로 中學校보다 高等學校, 大學校別로 農家所得이 많아야 教育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特히 高等學校教育은 〈圖 I-3〉에서 볼



〈圖 I-3〉 農家所得別 就學率

5) 中央教育研究所(財). 年間投入되는 教育費總額 추정 제53집(서울, 배영사, 1969)

수 있는 바와 같이 所得이 높을 수록 教育시키는 水準도 차츰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農家所得에 따라 教育시키지 他要因에 의하여 高等學校教育을 꼭 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中學校教育은 所得이 低水準이라도 高等學校에 比하여 就學率이 뚜렷이 높다. 이는 農村에서도 中學校教育程度는 可能한 한 就學시켜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同時に 高等學校와 같이 農家所得에 基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事實에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表 1-4>에서 農家所得이 350,000 원 以上인데도 大學教育을 안시키는 理由는 90% 程度가 高等學校를 卒業했기 때문에 特殊한 경우 以外에도 大學校를 가지 않는다는 事實에서 그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中學校는 教育學齡該當者中 52.5%가 就學하고 있으며 高等學校는 36.3%, 大學校는 5.3%가 각각 就學하고 있다.

<表 1-4>

農家所得別 學校就學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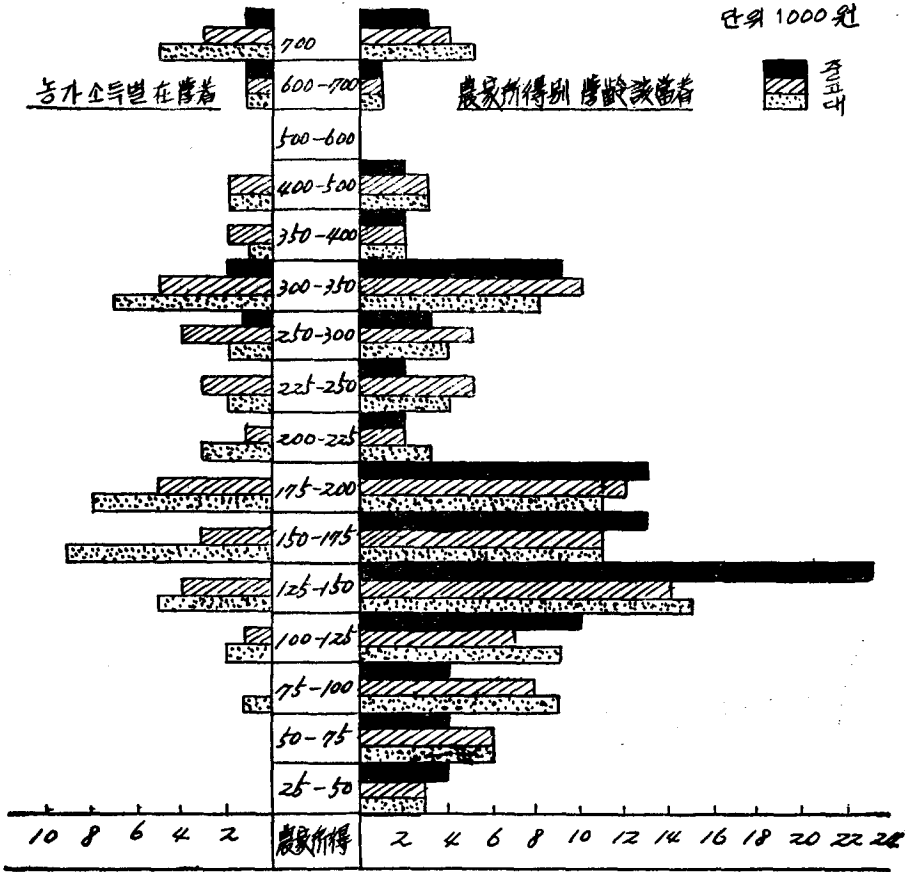
(단위: %)

농가 소득 구분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大 學 校		
	교육학령 해당자	재학자	재학자 백분비	교육학령 해당자	재학자	재학자 백분비	교육학령 해당자	재학자	재학자 백분비
0~25	0 명			0 명			0 명		
25~50	3 "			3 "			4 "		
50~75	6 "			6 "			4 "		
75~100	7 "	1 "	14.3%	6 "			4 "		
100~125	9 "	2 "	22.2 "	7 "	1 "	14.3%	10 "		
125~150	15 "	5 "	33.3 "	14 "	4 "	28.5 "	23 "		
150~175	11 "	9 "	81.8 "	11 "	2 "	18.2 "	13 "		
175~200	11 "	8 "	72.7 "	12 "	5 "	41.7 "	13 "		
200~225	3 "	3 "	100%	2 "	1 "	50 "	2 "		
225~250	4 "	2 "	50 "	5 "	3 "	60 "	2 "		
250~300	3 "	2 "	66.7 "	5 "	4 "	80 "	3 "	1%	33.3%
300~350	8 "	7 "	87.5 "	10 "	5 "	50 "	9 "	2 "	22.2 "
350~400	2 "	1 "	50 "	2 "	2 "	100 "	2 "		
400~500	3 "	2 "	66.7 "	3 "	2 "	66.7 "	2 "		
500~600	0 "	0 "	0 "	0 "	0 "	0 "	0 "		
600~700	1 "	1 "	100 "	1 "	1 "	100 "	1 "	1 "	100 "
700~	5 "	5 "	100 "	4 "	3 "	75 "	3 "	1 "	333 "
計	91	48	52.5	91	33	36.3	95	5	5.3

<圖 1-4>을 보면 農家所得에 따라 就學率과 學齡該當者가 表示되어 있다. 大學校教育은 大部分 教育 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國民學校는 거의 다(99.8%)就學시키고 있기 때문에 表示안했음).

5)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相關性 檢定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適合性程度를 알기 위하여 檢定을 하여 보니 다음과 같이 算出되었다.



〈圖 I-4〉 농가소득별 就學者數와 學齡該當者數

農家所得과 教育費의 相關表

(단위 : 1000원)

농가소득간격	~200	200~300	300~	計
교육비간격				
~20	73 戶	7 戶	5 戶	85 戶
20~50	25 "	7 "	9 "	41 "
50~25	6 "	5 "	11 "	22 "
計	104 "	19 "	25 "	148 "

$$22 \times \frac{104}{148} = 155$$

$$41 \times \frac{104}{148} = 28.8$$

$$85 \times \frac{104}{148} = 59.7$$

$$22 \times \frac{19}{148} = 2.8$$

$$41 \times \frac{19}{148} = 5.3$$

$$85 \times \frac{19}{148} = 10.9$$

$$22 \times \frac{25}{148} = 3.7$$

$$41 \times \frac{25}{148} = 6.9$$

$$85 \times \frac{25}{148} = 14.4$$

$$\begin{aligned}
 x^2 = & \frac{(15.5-6)^2}{15.5} + \frac{(2.8-5)^2}{2.8} + \frac{(3.7-11)^2}{3.7} + \frac{(28.8-25)^2}{28.8} + \frac{(5.3-7)^2}{5.3} \\
 & + \frac{(6.9-9)^2}{6.9} + \frac{(59.7-73)^2}{59.7} + \frac{(10.9-7)^2}{10.9} + \frac{(14.4-5)^2}{14.4} \\
 = & 28.37
 \end{aligned}$$

여기에서 x^2 의 값 28.37이 算出되었다. 農家所得과 學校教育費와는 關係가 없다는 假說을 세워놓고 이미 주어진 x^2 分布表에서 自由度 4, $P=0.05$ 에 대응하는 x^2 의 값은 9,488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얻어진 實驗值의 값은 28.37이므로 有意水準 5%를 훨씬 넘는 有意성을 나타낸다. 또한 有意水準 1%에서 x^2 은 13,277이므로 여기에서는 實驗値는 매우 有意의이라고 하여 假說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相關性이 있다고 判定하여도 위험율은 5%以下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相關性은 매우 높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II.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

最近에 發表된 여러 學者들의 實證의 研究에 의하면 한 나라의 經濟成長과 近代化의 速度는 人的 資本의 存在量과 그 蓄積率과 깊은 關聯性을 갖고 있다 한다. 특히 農村에 있어서의 農家所得과 그를 영향 내지 規制하는 諸要因과의 相互關係를 究明하고자 本研究에서는 于先 教育과 結付시켜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時代의 差異는 있겠지만 現在 農村에서의 就學率을 보면 國民學校教育은 거의가 다 就學하고 있으며 中學校教育도 52.2%就學하고 있다는 것을 本調査를 通하여 알 수 있었다. 이렇게 教育된 人力이 農村經濟에 얼마나 奇與하고 있는 것일까?

낮은 所得과 낮은 教育을 背景으로 한 궁핍한 狀態에서 教育을 받은 그들은 農村을 등지고 都市로만 몰려들고 있는 現象을 抑制치 못할 實情에 놓여 있다.

韓國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教育投資의 成長率은 높았으며 人間資本의 形成過程에 있어서 非農業部門의 人間資本의 質이 農村 또는 農業部門의 그것보다 우수하고 그 格差가 날로 擴大되어 간다는 事實이다. 궁핍한 농촌경제임에도 不拘하고 子女들의 教育을 위하여 農夫들은 값비싼 代價를 支拂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教育시키는 子女들은 거의 都市로 進出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서울이나 釜山等 大都市의 人的 資源의 根源을 이루게 하였으며 지금 우리 나라에 우수한 人的 資源은 大都市에 集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⁶⁾

本研究에서 調査한 바에 의하면 子女들의 教育은 都市에 살게 하기 위하여 工夫시킨다는 父母의 意見이 大部分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都市에 살게 하기 위한 教育” 이것이 바로 農村民들의 念願이요 理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農村人口의 都市進出에 있어서 學校教育을 받지 않는 것 보다는 教育을 받음으로서 보다 나은 일터(직업)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教育을 받은 人間資源의 都市進出은 그를 기르기까지의 農村負擔은 컸었지만 그를 받아드리는 都市로 파서는 그만큼 利得이 있다는 것이다. 農村人口比가 준다하여 덜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誤算이다. 오히려 줄수록 農業教育은 몇감절 重要的 位置에 놓인다. 보다 작은 比率이 從事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人口가 먹고 살 食糧을 生産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耕地擴張, 單位面積에서의 増產, 農業기계화, 全天候農業 등의 구조와 함께 小數農民일수록 보다 깊고 多樣한 農業知識과 技術이 要求됨에 農業教育은 더

6) 朴振煥, 農業系人力開發을 위한 세미나보고서(서울, 韓國農業研究院) 등사물, 1968. p.16.

속 重要性을 띠게 되는 것이다.⁷⁾ 여기에서 우리는 “教育和 農業發展”이라는 問題를 重要的 課題로 삼아야 겠고 깊이 研究할 必要性을 느낀다. 그런데 本研究에서 얻어진 結果에 의하면 農家所得의 增大는 教育和 直結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農村에서의 所得增大가 꼭 農業의 技能教育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本調査에서의 教育程度를 農業系學校만을 把握한 것이 아니라 一般校全部를 調査한 結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所得의 增大는 農業教育을 받으므로 生産性的 增大를 가져올 것은 물론이나 一般學校教育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事實 教育이라는 것이 家族生活에서의 適應的인 行動(Adjustive behavior)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文化的 慾求의 充足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重要的 社會的 要因이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또한 農材의 教育水準 向上에 따라 農村의 政治經濟 및 社會의 諸活動의 方式이 變化될 可能性이 內包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教育의 向上 問題는 우리의 非常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Nelson 도指摘했듯이 生活水準이란 單只 經濟的 要因에 의하여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며 教育和 같은 社會的 變化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는 것이다⁸⁾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生活水準이란 經濟要因에 基因되는 것보다 教育에 基因되고 있으며 農家所得도 經營者の 教育程度에 따라 영향이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Kirkpatrick의 New York 에 있는 農民들의 生活에 관한 先驅者的인 研究에서도 發見되었던 바 正規教育이란 經營主의 收入 및 生活水準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關備가 妥當한가를 檢定하기 위하여 “全北 農村에 있어서 生活水準과 關聯된 諸要因의 分析”에서 밝힌바를 살펴보면 經營主의 教育年數와 生活水準間에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假說을 세워놓고 以上과 같은 假說을 檢定하기 위하여 經營主의 教育을 四分하여 生活水準과의 相關關係를 본 結果 전혀 받지 않은 經營者中 55.8%가 生活水準의 下層에 15.6%가 上層에 屬하는 反面에 經營主의 教育年數가 7年 以上の 範疇에서는 58.4%가 上層에 屬하고 있음은 單적으로 教育和 生活水準이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χ^2 檢定을 한 結果 5%水準에서 매우 有意的이어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教育水準이 높으면 높을 수록 生活水準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結果는 先進國의 研究結果와 一致하는 것으로서 教育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록 많은 貨幣支出을 하며 文化的인 生活을 營爲⁹⁾한다는 것이 說明된 바 있다. “教育의 모자람이 韓國農夫들의 적은 收入과 關係있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教育을 받은 農夫들은 많은 收入을 내고 적게 教育을 받은 農夫들은 적은 收入을 만 든다¹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農家所得과 經營主의 教育水準은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本調査地域에서의 經營主 教育水準과 農家所得과는 어떤 關係가 있나를 파악하고자 한다.

1) 經營主 教育程度와 農家所得

本調査에서는 經營主의 教育程度에 따라 農家所得에 어느 程度 影響이 있는가를 分析하니 다음과 같다.

〈表 II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育水準에 있어서 經營主無學인 階層이 48戶, 國民學

7) 정지웅, 技能의 教育(서울, 배영사, 1967) p.168

8) 전계서, p.81.

9) 전계서, p.34.

10) 전계서, p.88.

校卒業이 72戶, 中學校卒業 以上이 28戶로써 國民學校卒業한 經營主가 第一 많음을 알 수 있다. 經營主教育程度가 無學인 階層에 있어서 下位の 所得層이 43.7%, 中位の 所得層이 43.7%, 上位의 所得層이 12.5%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上位의 所得層 比率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國民學校卒業인 階層에 있어서 下位の 所得層이 33.3%, 中位の 所得層이 50%, 上位의 所得層이 16.7%로서 中位の 所得層이 가장 높은 比率을 보여 주고 있다. 中學校卒業 以上인 階層에 있어서 下位の 所得層이 17.8%, 中位の 所得層이 25%이나 上位의 所得層은 57.1%라는 높은 比率을 보여 주고 있다. 果然 教育을 많이 받은 經營主는 所得農家도 높다는 事實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特히 大學을 卒業하였거나 중퇴한 經營主中 100%가 上層에 屬하고 있음을 보아 教育과의 關係가 깊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자녀教育도 經營主가 高等學校卒業 以上이면 100% 教育을 시키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었다.

經營主教育程度와 農家所得과의 χ^2 檢定에서도 24.40이 算出된 것을 보더라도 經營主의

〈表 Ⅱ-1〉 농가소득과 경영주 교육정도 상관표

농가소득		125,000 以下	125,000~250,000	250,000원 以上	計
교육정도	無 學	+++++	+++++	+++++	48戶
		+++++	+++++		
		+	+		
		+++++	+++++	+++++	
國 卒	卒	+++++	+++++	+++++	72戶
		+++++	+++++	++	
		+++++	+++++		
			+++++		
中 卒 以 上	上	+++++	+++++	+++++	28戶
				+++++	

教育水準이 높으면 높을 수록 農家所得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經營主의 教育水準이 높으면 따라서 農家所得도 높아진다는 것이며 反對로 經營主의 教育水準이 낮으면 따라서 農家所得도 낮아진다는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2) 經營主 教育程度別 現在 子女就學程度

本調査地域에서의 經營主教育水準과 子女들의 就學程度를 살펴보니 〈表 Ⅱ-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러한 結果는 所得의 高低에 따라 教育시킨다기 보다 父母의 教育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子女의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調査結果에 대한 分析을 하여 보니 經營主 無學인 階層에 있어서 子女들의 就學程度는 中學校教育이 2.5%, 高等學校教育은 20%, 大學校教育은 4.4%를 各各 教育시키고 있다. 또한 經營主가 國民學校卒業인 階層에 있어서는 中學校教育이 61.9%, 高等學校教育이 37.1%, 大學校는 하나도 없다. 教育水準이 높은 經營主의 中學校卒業 以上인 階層에 있어서는 子女들의 中學校教育이 77.7%, 高等學校教育이 72.2%, 大學校教育이 23.7%을 나타내고 있듯이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子女의 就學率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II-2〉

經營主教育程度에 따른 子女就學率

자녀교육 경영주교육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大 學 校
無 學	22.5%	20%	4.4%
國民學校卒業	61.9%	37.1%	0
中學校卒業以上	77.7%	72.7%	23.1%

또한 經營主의 教育程度와 子女의 學校卒業程度에서 相關性(x^2)을 檢定하니 31.65라는 높은 有意性을 보더라도 經營主의 教育水準에 따라 子女들의 教育水準도 높아진다는 結論을 얻일게 된다.

3) 農村出身의 學校卒業程度와 農業寄與度

農村出身들이 都市로 移住하는 경향은 해마다 增加되고 있다. 1970年 6月 10日 農林部에 의하면 지난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年동안 모두 1,846,000名, 年平均 36,900名이나 農村을 떠났는데 해마다 이와 같은 離農事態는 甚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現實은 영세농민들이 都市의 工業人口로 吸收되었거나 營農을 포기하고 다른 職業으로 轉出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年度別 人口와 離農率은 다음과 같다.

年 度	離農人口	離農率
1965年	145,000名	0.9%
1966 "	331,000 "	2.1 "
1967 "	161,000 "	1.0 "
1968 "	540,000 "	3.4 "
1969 "	66,900 "	4.3 "

本調査結果 〈表 II-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때 너무 微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農業에 從事하는 者들은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적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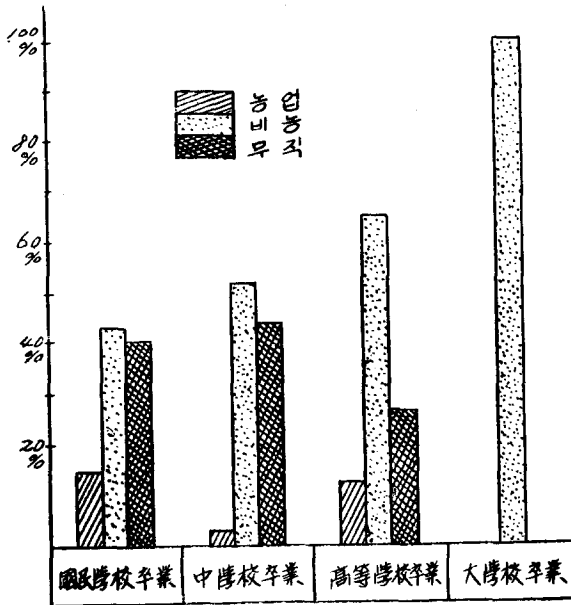
大學校卒業者들은 하나도 農村에 남아있지를 않고 全部(100%) 農村以外가 職業에 從事하고 있다. 반면에 教育水準이 第一 낮은 國民學校卒業者들이 農業에 從事하는 率은 16%로써 第一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學校卒業者들 보다 5倍나 더 農業에 從事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에서의 教育水準은 自然히 낮아지므로 農家所得도 낮아져 農村의 落後性을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下에 都市와 農村의 經濟的 差異는 멀어져가고

〈表 II-3〉

學校卒業程度別 農村寄與度

職業	국 민 교 줄 업	中 學 校 卒 業	高 等 學 校 卒 業	大 學 校 卒 業
就 業 中 農 業	31名 (16.8%)	2명 (3%)	3명 (11%)	0
就 業 中 非 農	79 " (42.7 ")	35 " (51.4 ")	18 " (64 ")	12명 (100%)
無 職	75 " (40.5 ")	31 " (45.6 ")	7 " (25 ")	0
計	185 " (100 ")	68 " (100 ")	28 " (100 ")	12 " (100 ")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대면 학교 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보다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圖 II-1〉 學校卒業程度別 農業寄與度

어떻게 하면 이러한 不均衡狀態를 打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課題이며 理論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現生活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結 言

韓國農村經濟와 農村教育과의 相關性을 되도록 具體的으로 實證化하고자 하는 필자의 意圖에 따라서 豫備調査 및 本調査와 調査資料의 統計의 分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諸事實을 確認한 바 있다. 그중 우선 農家所得으로서 集約된 農村經濟가 農村子女의 學校教育에 미치는 影響을 檢討한 바 아래와 같이 要約된다.

1) 첫째로 農家所得과 農村子女의 學校教育과의 關係는 예상한 바와 같이 調査대상 地域(天原郡)에서도 充分히 認定된 바 있다. 즉 이를 標本理論에 따른 檢定을 실시해 본 結果 充分히 양자의 相關度에 有意性이 認定된다.

2) 그런데 이와 같은 前提下에 한된 農家所得과 教育費와의 抽象的 相關係數(σ)를 全體적으로 뽑아 算出한 바 그다지 높은 水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sigma=0.541$) 그러나 이러한 低水準은 다시 學校層別(國民, 中, 高, 大)로 里分하여 볼 때 바꾸어짐을 確認한 바 있다. 즉 國民學校가 中學校보다 高等學校 大學校別로 農家所得과의 相關性이 높아진다. 그 가운데 한편 所得만으로써 教育水準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도 確認한 바 있다. 이를테면 中學校就學에 관하여 農家所得과 相關係數는 0.69로 나타나므로 理論上 約 50%는 다른 要因이 作用함을 알 수 있다. ($\sigma=0.541$ 은 國民學校포함)

3) 農家所得 以外的 支配的 要因(中學校에 관하여)에 관하여서는 좀더 깊이 追究할 餘地

가 있으나 調査地帶에서는 具體的으로 發見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 參考로 經營主의 教育程度와 子女教育程度와의 相關性을 보았더니 相當히 높은 相關性을 보였다. 이 點에 비추어 또 하나의 重要한 支配要因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效果面에서 注目되는 點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1) 農家經營主의 教育水準은 大部分이 國民學校 以下の 低教育程度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農家經營主의 學校教育年數에 따라서 農家所得이 높아진다는 事實을 알 수 있었다. 統計的 相關性檢定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매우 높은 有意性을 보여 주고 있다. ($x^2=24.40$)

그러므로 學校教育이 農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一般的으로 크다는 것이 認定되는 바이나 實地에 있어서 그 效果는 적게 나타나 있다. (教育. 높을 수록 離農하기 때문)

2) 많은 農家의 教育받은 子女가 都市로 流出되고 있다. 이를테면 中學校가 國民學校보다 離農率이 높고 高等學校大學校別로 離農率이 훨씬 높아지며 農業에 從事하는 率이 農業以外的 職業에 從事하는 者들의 比率과 反對의이다. 결국 農村教育에 相當量의 資本投下가 있었지만 農村에서 받는 혜택은 結果的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高等學校는 農業高等學校 卒業者가 있기 때문에 中學校보다 農業에 從事하는 率이 다소 높다.

3) 위에서 離農者들의 居住地 把握을 試圖한 結果 半數程度가 서울 居住者다. 以上에서 알려진 여러가지 事實에 立脚하여 農村經濟가 教育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教育이 農業生產에 미치는 實效는 期待한 바 같이 크지 못하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4) 以上の 分析結果에 비추어 國家에 寄與할 수 있는 問題를 提起하자면 于先 農家所得을 增加시켜 農村子女의 就學率을 높여야 할 것이며 즉 就學率을 增加시켜 農業生產性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教育을 받은 農村靑少年의 離農率을 줄이고 調節하는 방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農村文化施設과 아울러 都市産業의 適地分散의 施策 등이 要望된다. 또한 教育投資의 增加와 教育의 長期化計劃 實現性도 農村에 시급한 問題中 하나이다.

〈Résumé〉

Les relations entre le revenu de ferme et la éducation à Corée

Yong-Hi Chei
(EWha Womans Univ. M. A.)

La Construction d'une société développée dans tous sens, écartant le statut de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peut être l'espérance et la philosophie de savoir vivre du peuple pauvre. Puisque nous sommes dans telle situation au point de vue théorique et en réalité les relations très étroites entre la politiqu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le progrès économique nous prêtent attention particulièrement à nos jours.

En tenant compte à la fois l'influence de l'économie d'agriculture sur l'éducation et l'influence de celle-ci sur l'autre, j'ai essayé de voir la réciprocité de l'éducation et de l'économie d'agriculture dans le progrès économique de la Corée qui est d'ailleurs en voie développement.

On peut constater facilement qu'en raison du fait de déséquilibre économique en Corée, la grande différence entre les villes et régions agricoles se reflète sur l'éducation. Pour voir plus près ces faits, j'ai analysé la situation économique et le taux de l'entrée à l'école aux alentours de la région de TCHUN-AN TCHUNG-NAM.

Suivant cette analyse, l'influence de l'économie d'agriculture sur l'éducation des enfants de cultivateur est suivante.

Premièrement, les études, selon la méthode de schéma critique; sur les relations (x^2) entre les revenus et le taux de l'entrée des enfants de cultivateurs nous approuvent que les deux réalités se sont liées très étroitement. ($x^2=28.37$)

Deuxièmement, le coefficient différentiel (γ) entre les revenus agricoles et les frais d'éducation n'est pas grand ($\gamma=0.541$). En tenant compte de différents grades des écoles fréquentées (école primaire, lycée, lycée supérieur, université), on constate que le cultivateur, ayant l'éducation à plus haut degré, a aussi ses revenus élevés. La fréquentation de l'école primaire ne dépend presque pas en général de revenus de cultivateur, mais pour éduquer un enfant au lycée, les revenus du cultivateur doivent être plus 75.000 Wen par an, pour lycée supérieur 100,000 Wen et enfin pour l'université 250,000 Wen.

Troisièmement, sans tenir compte de revenus d'agriculture, la fréquentation à l'école des enfants de petits commerçants-cultivateurs et l'éducation de ceux-ci même reçue sont très élevée par rapport aux simples cultivateurs. On peut donc affirmer que celui qui a une éducation à haut degré envoie également ses enfants à l'école à plus haut degré.

L'influence de l'éducation sur l'économie d'agriculture est suivante:

Premièrement, l'éducation des cultivateurs a été très basse: 32% de sans éducation, 49% de l'école primaire, 19% de l'éducation à partir du lycée. Les relations(x^2) entre l'éducation des cultivateurs et leurs revenus se montrent très intimes (24, 40), Par conséquent, tant l'éducation de cultivateur est élevée que ses revenus aussi élevés. Selon cette analyse, l'éducation de cultivateur joue un grand rôle dans le progrès économique d'agriculture, mais en réalité il est au contraire, parceque le grand nombre des cultivateurs élevés à des grandes écoles s'en vont vers les villes à la suite de l'industrialisation récente.

Deuxièmement, le pourcentage des enfants de cultivateurs qui, après leurs études, se consacrent à l'agriculture est suivant: 68% après l'école primaire, 3% après le lycée, 11% après lycée supérieur, mais aucune personne après l'université?, et le reste se consacre à d'autres métiers que l'agriculture. Comme nous l'avons remarqué, l'éducation exerce une faible influence sur le progrès de l'économie agricole, mais le taux annuel des revenus de cultivateur joue un rôle considérable dans l'éducation(16% de ses revenus sont consacrés à l'éducation).

D'après cette brève analyse, on peut dire avec une insistance que le gouvernement doit réaliser une décentralisation des usines vers des régions déshéritées et choisir une régionalisation selon circonstances nationales pour que le déséquilibre économique et culturelle entre les villes et les campagnes disparaisse le plus vite possible.

La décentralisation et la régionalisation supposent les investissements massifs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qui est d'ailleurs le plus important pour l'économie nationale, et cela suppose également l'autonomie de chaque région en rapport avec le gouvernement central.

〈參 考 文 獻〉

1. 金迎圭, 덴마크農業實習記(서울, 平和堂, 1962)
2. 金泳祿譯, 經濟開發의 構想 Jan Tinbergen 의 the Design of Development(서울, 탐구당, 1964)
3. 金泳祿譯, 先進國과 後進國 Walt Whitman Rostow 의 View from the Seventh floor(서울, 탐구당, 1966)
4. 金鍾喆, 技能의 教育(서울, 培英社, 1969)
5. 金鍾喆譯, 教育과 經濟成長 Frederick Harbison and Cuarees A. Myers 의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서울, 을유문화사, 1965)
6. 金俊輔, 一般經濟學(서울, 進明文化社, 1960)
7. 金俊輔, 現代統計學(서울, 민중서관, 1955)
8. 經濟企劃院(편), 都市家計報告書(서울, 大韓藝文社, 1968)
9. 經濟企劃院(편), 人口센서스報告(서울, 光明인쇄公社, 1968)
11. 經濟企劃院(편), 韓國統計年鑑, (서울,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1969)
11. 農林部(편),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結果報告書(서울, 동화인쇄사, 1969)
12. 大韓教育聯合會(편), 韓國教育年鑑(1970), (서울, 천풍인쇄사, 1970)
13. 朴東昂, 韓國農業經濟(서울, 法文社, 1962)
14. 새 교육, 1966年 2月
15. 尹瑾燮, 韓國社會學(제4집),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16. 李滿基, 韓國經濟論(서울, 日新社, 1964)
17. 李 中, 教育과 社會(서울, 培英社, 1970)
13. 李碩崙, 經濟發展의 理論(서울, 法文社, 1968)
19. 李澤徽譯, 後進社會發展論 William Mccord 의 the Evolution of Developing Societies(서울, 탐구당, 1967)
20. 王仁權, 農村社會學(서울, 富民文化社, 1962)
21. 全國教育大學聯合會(편), 韓國社會의 諸問題(서울, 교학도서주식회사)
22. 鄭英鎮, 近代統計學의 理論과 실제(서울, 보진제, 1969)
23. 中央教育研究所(편), 年間投入되는 教育費총액추경(제53집)(서울, 培英社, 1969)
24. 忠淸南道教育委員會(편), 忠南教育統計年報(1968) (서울, 大韓출판사, 1968)
25. 韓國農業教育協會(편), 農業係人力開發을 위한 效率의 방안(서울, 1968)
26. 韓國日報社(편) 經濟教室 1 1 1(서울, 韓國日報社, 1967)
27. 韓國農業經濟學會(편), 農業經濟研究 제7,9집(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
28. 現代教育에센스 (서울, 대한교련공제조합세교실출판실, 1967)
29. 洪忠植, 韓國經濟論
30. 後進社會問題研究所, 韓國近代化에 있어서의 後進의 要因(서울, 경희大學校出版局, 1968)
31. C. Arnola Anderson and Mary Jean Bowman;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hicago; Aldirg publishing Company, 1965)
32. Gary S. Becker; Human Capital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4)
33. Jil Hyun Lee, Economic Value of Korean Farmer's Education (Cornell University, 1967)(Printed material)
34. Patricia Coyo Sexton, Education and Incom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1)